

세계적인 우수교육도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서 제1회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 열려

사하구가 세계적인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1월 30일 '제1회 국제교육도시의 날' (International Day of the Educating City)을 맞아 감천문화마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제1회 우수교육도시상' 수상을 알렸다. '제1회 국제교육도시의 날'은 전 세계 37개국 487개 도시가 가입해 있는 IAEC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날이다.

이날 세계 각국에서 워크숍, 강연, 문화행사 등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렸는데 국내에서는 '제1회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한 감천문화마을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회원도시 16개 도시에서 관계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우수교육도시상 수상' 홍보판과 기념식 제막식, 기념행사, 사하 1일 투어로 진행되었다.

이경훈사하구청장은 "더 나은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도시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제막식에 참여한 주민들과 회원도시 관계자들은 여러 색상의 카드로 'IAEC 국제교육도시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를 만들고 풍선 날리기로 축하 분위기를 띄웠다.

감내골 행복발전소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박철하 차지행정국장이 도시재생을 주제로 감천문화마을

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기까지의 변모과정을 교육도시 관계자들에게 소개하였다.



기념행사

감천문화마을을 골목길 투어는 회원도시 관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골목골목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예술작품들, 마을 입주 작가 공방, 빈집을 갤러리로 꾸며놓은 빈집 프로젝트 작품 등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는 재미에 빠졌다. 마을 입주 작가 공방에서 작업 중인 입주 작가들과 만난 참가자들은 방치된 빈집들을 재정비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구미시 박노돈 교육기획계장은 "감천문화마을은 파괴없이 보존과 재생으로 온 마을을 문화로 창조한 도시재생의 우수사례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마루, 감내어울터, 천덕수우물, 감내목간, 게스트하우스 등 명소들도 둘러보았다. 죽전 경로당 아래

설치된 감내목간은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목욕탕과 경로당이 함께 설치된 아이디어를 칭찬하며

"고지대인 감천문화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유용한 시설이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행사 이후 아미산 전망대, 고우니생태길, 대대포해변공원 등을 방문해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였다.

대구 달서구 김기연 팀장은 감천문화마을에 3번째 찾아왔는데 올때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이라며 다음 방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제1회 국제교육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다시 찾고 싶은 사하구를 그려본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우수 교육도시상 수상 홍보판 제막식

사하구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가 11월 17일과 18일에 도시철도 당리역에서 열렸다. 11월 17~18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는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체험을 하려고 길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 손뼉을 치며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당리역사는 행사내내 북적였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주민들이 배우고 익힌 학습결과를 전시와 체험, 공연을 함으로써 학습의 가치를 나누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첫날부터 당리역 무대 앞에는 공연을 보려는 관중들로 꽉 차 있었다. 동아리 '시니어댄싱'의 신명나는 춤은 관중들까지 흥겹게 했다. 지나가는 지하철 승객들도 장바구니를 옆에 두고 손뼉을 치며 흥겨워했다. 최고령 수강생 조원숙(83세)씨는 라인댄스가 있어 노후가 즐겁고 행복하다며 웃음이 가득하다.

체험부스는 수경재배, 네일아트, 손발마사지, 에코백 만들기 등 13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녹색으로 덮인 수경재배는 미리 키워 온 밀 싹, 보리 싹으로 시음회도 했다. 몸에 좋은 음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마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수경재배로 키운 예쁜 국화는 나누어 주었다. 장미꽃

삶의 활력은 평생학습으로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체험부스



동아리 공연

잎으로 직접 물을 들여 만들어보는 에코 손수건 체험은 초등학생들이 특히 좋아했다. 장미가 손수건 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미꽃잎 손수건을 보며 신기해했다. 체험부스는 성과 공유회에서 주민들의 큰 인기를 모으며 단연 주목을 받았다. 다양한 전시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을 책으로 만들었다. 꿈 책에는 경찰관, 선생님, 네일아트 등 어린이들의 꿈이 그림과 함께 글로 표현되었다. 성인문해기관에서는 한글 시화전을 했다. 글을 몰라 생활이 불편했던 수강생들의 작품이라 의미가 깊었다. 이제는 은행도

주민 센터도 직접 가서 자신 있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수강생.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즐겁다. 김한선(75세)씨는 시화전, 편지쓰기 등 각종 대회에서 상을 도맡아 탄다고 한다. "대전에 있는 딸집에도 혼자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을 알고 나니 세상이 다시 보여요."라고 자랑한다. 당리역사를 가득 채운 한지공예, 사하구를 담은 풍경사진, 캘리그래피, 나무벤치, 계란판으로 만든 의자, 테이블 등 전시 작품은 오가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틀 동안의 행사를 통해 평생학습으로 꿈을 꾸는 어린이들, 노후가 행복해진 어르신들, 세상 사는 맛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재능기부로 이어지고 공유하면 어린이는 꿈을 꾸고 어르신의 노후는 행복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사하구의 한 해 동안 평생학습은 주민들을 행복하고 신명나게 했던 것이 분명하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배움 너머 세대를 잇다 평생학습실천대회

사하구, 부산광역시 평생학습 운영평가 우수상 수상



제5회 부산광역시 평생학습실천대회가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도 참석하는 시민들로 대강당은 가득 찼다.

이날 행사는 '배움 너머 세대를 잇다' 라는 주제로 1부 개회식과 2부 토크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샌드아트&아카펠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행사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2016년 구·군 평생교육운영평가 시상식에서 사하구는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2014년 최우수상, 2015년 우수상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우수상은 사상구에서 수상하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성지문화원과 사상구청, 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차례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부 행사인 토크콘서트에서는 사하구 형설모두학교 은현범교장이 '청년, 세대를 잇다'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또 부산농아인협회 고시현 씨가 수화로 '고향을 봄'을 주제로 강연하여 많은 이들이 감동하였다. 이번 평생학습실천대회는 평생학습 현장에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재미와 감동이 있었던 평생학습 한마당

제5회 평생학습 박람회를 다녀와서

9월22일~25일 거창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다녀왔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거창군,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다. 전국을 돌며 일 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행사인데 군 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 아침 낙동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한 관광버스에는 사하구청 담당자들과 평생학습과에서 활동하는 기자, 동아리, 주민 강사 등 90여명이 탑승을 했다. 거창 공설운동장에 도착하자 대회를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이 우리를 맞았다. 가을 농촌에서 열린다 더 풍성했다. 전국대표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한 곳에서 만끽할 수 있었다. 사하구도 우드엑세서리(고우니, 감천물고기) 만들기 체험, 까치마을빌리지활성화 사업 성과물인 향기 작품 전시, 동아리 공연에 참가하여 사하구의 평생학습을 널리 알렸다. 전국적인 행사에서 사하구의 다양한 평생학습을 만나니 뿌듯함이 느껴졌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운동장 가장자리엔 체험활동을 하느라 곳곳이 붐볐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고 사용하던 민속품들이 많았다. 나는 떡 틀을 만들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 민속놀이나 공예품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데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가져가니 실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남녀노소가 열심히 체험을 하는데 가족단위로 체험과 관람을 하는 모습은 더 정겨워 보였다.

거창운동장에서 사하구의 초등학생과 칠순 어르신들이 같이 공연한 '특별한 만남' 동아리팀의 우크렐레와 오카리나 합주 연주는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어른세대와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세대가 어울려 공연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미성(감천동) 씨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70대 어르신까지 어우러진 팀이 6월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까지 꾸준히 연습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면서 쓴 작품들을 전시한 시화전에는 가슴 찡한 사연도



많았다. 장병연 씨의 시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길고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한글을 배우는 지금은 터널 끝 환한 세상이 보인다. 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나의 공부 계속 될 것이다'는 글을 몰라 답답했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행사 장소가 멀어 서둘러 온다고 모두 참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관을 해 평생학습이 주는 인생의 보물을 찾길 바란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동아리 봉사활동으로 이웃과 함께 훈훈한 평생학습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는 지속적인 학습 활동과 지역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는 200여 개의 학습동아리가 등록되어 있다. 연말을 맞아 배움을 나눔으로 확장하고 있는 평생학습동아리를 만나 보았다.

종이비행기(회장. 이미자)는 종이접기와 토탈아트를 연구하고 봉사하는 동아리다. 매월 한두 차례씩 두송복지관, 건강강정지원센터, 사하구 작은도서관 등에서 꾸준히 종이접기 봉사를 하고 있다. 평생학습동아리 재능기부 행사와 발표회 때마다 빠짐없이 활동하고 있다. 연말에도 변함없이 지역주민을 찾아가 종이접기 봉사를 하고 한 해 동안의 실적 평가를 한다.

우리 소리와 풍물을 연구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동아리 소리너름(회장. 정영고)은 매주 월요일 괴정동 소리너름 공간에서 학습한다. 각종 종교 행사와 축제 등에서 꾸준히 우리 소리와 풍물을 알리고 있다. 신평동 미소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하단동 중앙 효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날에도 중앙 효 요양병원에서 우리 소리 풍물로 어르신들을 위한 송구영신의 위문공연을 한다.

리센동아리(회장. 정영희)는 매월 1회 포장기법과 이론을 배우고 응용하여 재능기부를 한다. 평생학습동아리 재능기부 행사와 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주민과 함께 파우치(작은 가방) 만들기와 포장수업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이번 연말에는 다대동 기쁨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서 파우치 만들기와 포장 수업을 한다.

우쿨렐레 학습과 연주 봉사를 하는 동아리 목화향기는 매월 당리동 청림요양병원에서 연주 봉사를 한다. 연말에는 다대2동 다복동 사례 발표 워크숍(자원봉사자 모임 결산대회)과 김장축제에서 주민을 위한 연주 봉사를 한다. 음악에 맞춰 즐거워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힘이 솟는다는 김양희(52세, 다대동) 회장은 "우쿨렐레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이 즐거워졌다. 봉사는 내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평생학습을 만나 삶의 활력을 찾고 동아리를 구성해 의미있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다. 매월 1, 2회씩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봉사하는 그들을 통해서 배움이 또 다른 감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주민에게 다가가는 사하구 내년 평생학습 앱 서비스 개시



사하구가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홍보·체험관'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3회 운영하였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밴드, 페이스북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수강신청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 앱 개발에도 나섰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평생학습도시지원사업으로 내년 1월 중 평생학습 앱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강화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속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시스템 구축으로 강좌개설, 주요행사를 실시간 알림으로 확인하는 평생학습 정보 푸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에서 회원가입과 수강신청을 하고 나의 학습이력, 학습동아리, 회원정보수정 등 편리한 평생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우선 보급 후 아이폰 보급은 추후 검토중이다.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꿈을 이루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부산실버영상제 장려상 받은 박영수 님

사하구의 중요한 행사에 가면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박영수(74세·다대동)님이다. 중절모자를 눌러쓴 카메라맨으로, 동아리 참여자로 꼬박꼬박 참석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1m 82cm의 키 큰 할아버지가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행사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알고 있다.

박영수 님이 처음 평생학습을 접한 것은 사양길로 들어선 유선전화사업에서 은퇴한 2011년이다. 우연히 현수막에 걸린 사랑채 노인복지관의 합창단 모집 광고를 보면서부터다. 그때부터 그는 실버 합창단을 비롯하여 붓글씨, 컴퓨터, 악기 등 여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뒷방 늙은이가 되는 줄 알았다가 새로운 학습의 세계에 눈을 떴다. 그는 평생학습관에서 카메라 강좌를 수강하면서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넘어 정말 재미있는 일을 만났다. 카메라 강좌와 영상 강좌를 들으면서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심화학습을 위해 해운대구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까지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환승하여 다녔다. 저녁 7시부터 3시간 강의를 듣고 지하철을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 밤 12시가 되곤 했다.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다. 처음 출품한 영상물이 제2회 부산 실버영상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올해는



‘천천히 가는 시네마’ 라는 동아리 이름으로 부산 실버영상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배우는 주로 사랑채 노인복지관 동료들이고 가끔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노인들이다. 테마의 대부분은 노인들의 외로움이다. 영상을 만들 때의 어려움으로 노인들이 쉽게 촬영에 응해주지 않아 의도대로 촬영할 수 없는 것과 부족한 여러 기술적인 부분, 시나리오 구성 등을 꼽는

다. 박영수 님은 지금도 촬영과 편집, 시나리오 구성을 가르쳐주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간다. 자주 찾는 곳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영도 복지관, 자성대 복지관의 영상교육반이다. 캡코더를 살 돈이 없어서 미디어 센터에서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가 촬영한 영상물들은 대여한 캡코더로 낡은 창작물이다. 그는 오랜 시간 틈틈이 도시락 봉사 등 봉사활동에도 힘써 왔다. 얼마 전에 봉사시간 1천 시간을 초과하여 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금배지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다대포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 주변에 몸과 마음이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많이 본다. 그래서 꿈을 끈다. “홀로 된 노인들에게 즐겁고 희망이 있는 영상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자서전도 만들고 싶어요.”라며 웃는다. 백 세 시대에 박영수 님의 꿈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기도 하다. 나이가 많다고 꿈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영수 님을 적극 소개한다. 박영수 님을 보며 평생학습으로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는 일은 나이나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요리 별거 아니네

요리하는 멋진 남자들

독거남성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요맛남 강좌가 다대복지관에서 3월부터 열렸다. 요맛남은 요리하는 멋진 남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름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강좌였다. 수강생들은 지적 장애 2,3급과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요맛남은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렸다. 수업은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와 다소 난이도가 있는 요리로 진행 되었다. 수강생들은 처음에는 요리가 힘들고 번거로웠다고 한다. 하지만 요맛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요리가 늘어나게 되었고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11월 10일에는 14번째 요맛남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다. 수강생들은 요리를 하기 전에 위생에 신경을 쓰며 손부터 씻었다. 앞치마와 위생모자는 필수였다. 송지현 강사가 설명하고 시범을 보일 때는 집중해서 듣고 역할을 분담해 준비된 재료를 썰었다. 해물은 살짝 데치고 준비된 재료들을 후라이팬에 올렸다. 먼저 쪽파를 깔고 반죽을 퍼주고 각종해물을 보기 좋게 얹었다. 먹음직스러운 해물 파전이 고소한 냄새와 함께 구워졌을 때는 미각을 자극했다. 드디어 시식 시간이 되었다. 한입 먹어보고 고소하고 바삭한 맛에 모두들 맛있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서로에게 먹어보라며 챙기는 모습들은 얼마

가 자식에게 맛을 보라며 먹여주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다.

이성명(46세)씨는 칼질을 할 때 손 떨림이 있어서 힘들지만 요리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와서 요리준비를 도왔고 요리가 끝난 뒤에도 설거지를 도왔다. 자발적으로 밑반찬 배달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 우울증이 있어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사람 만나는 일이 즐겁다고 했다. 요리강좌를 계기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돕고 싶어요”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즐거워했다.

요맛남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유신형 사회복지사는 요리를 배우는 것 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했다. 집안에만 있던 수강생들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했다. 지금은 수강자들이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반가워하며 안부도 묻는다고 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성과로 꼽았다. 요리와 소통을 배우는 요맛남은 2017년에도 계속된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평생학습의 새로운 바람

지역의 예술가와 주민과 기업이 평생학습으로 하나 된다.



사하구의 평생학습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달걀판을 이용해 휴게공간을 꾸미고 폐자원을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든다. 10월에 열린 달걀판으로 휴게공간을 꾸미는 ‘곶감이 달걀판 휴게공간 프로젝트’와 폐자원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철로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행정, 기업과 평생학습이 만나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평생학습을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곶감이 달걀판 휴게공간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바쁜 도심에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주자는 의미에서 진행되었다. 달걀판을 염색해 여러겹 겹쳐 알록달록 화사한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 도시철도 당리역에 배치하였다. 삭막한 지하철 벽면에는 가로 7m 50cm, 세로 3m의 대형 달걀판벽화가 세워졌다.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17가족의 수강생들과 박상덕 작가 외 흥티아트센터 작가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물이다. 수강생들은 협동하여 만든 작품이 벽면에 전시되고 다른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철로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는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선보공업(주)과 함께 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자원이 쓸모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되는 것에 가치를 둔 프로그램이다. 가치예술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김정주 작가 외 가치공작소의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폐자원인 철을 소재로 하



여 스트링아트(줄을 이용한 예술), 시계, 모빌, 달력, 북 앤드 등을 만들었다. 버려려던 현 후라이팬이 시계가 되고, 공장에서 버려진 동파이프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모빌이 되었다. 수강생들의 손을 거쳐 폐자원들은 소중한 작품으로 거듭났다. 수강생들은 필요 없고 방치되었던 물건을 활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아트 철로 만드는 따뜻한 이야기는 노동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하구와 선보공업(주)의 연계로 기업특화 컨소시엄(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회나 조합) 지원사업으로 부산평생교육진흥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된 사업이다. 흥티예품(흥티로 떠나는 예술나들이) 곶감이 달걀판 휴게장소 프로젝트는 2016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두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아닌 주민과 행정, 예술가와 기업이 소통하고 협동하여 공간과 작품을 만들어 내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시도였다. 환경오염, 매연, 폐기물 등을 연상시키는 공장이 평생학습을 만나 자원순환, 친환경, 지속발전가능까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만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재능 나누고 행복 더해요

인형극 전문 봉사단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주머니 인형극 전문 봉사단은 11월 17일 도시철도 당리역 사하구 평생 학습 성과 공유회에서 공연을 했다. “달~”, “달~”, “빨리 달을 올려!” 좁은 무대 뒤에서 쭈그리고 앉아 인형을 조작 하느라 인형극 단원들은 정신이 없었다. ‘달 따라 가자’ 라는 새롭게 준비한 인형극이라 실수도 약간 있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열심히 대본에 맞춰 인형으로 연기하는 단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진정한 봉사자의 모범이었다.

이야기 주머니는 2012년 전문자원봉사 양성과정의 일환으로 동화구연과 인형극 양성교육 이수 후 결성된 인형극 전문봉사단이다. 2013년 3월 정식 창단했

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1기 16명의 회원이 아동 유괴 방지 캠페인 인



형극 ‘할머니 집 가는 길’ 을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공연하며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 봄에는 사하구의 지원으로 2기를 모집해서 1기와 함께 인형극 심화교육 후 전기절약과 환경사랑 캠페인 인형극 ‘달 따라 가자’ 를 새로이 제작했다. 단원들의 도전

과 노력이 대단하다. 9월에는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전국 동아리경



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이제는 인형극 전문이라는 수식어가 손색이 없다. 이야기 주머니는 앞으로 봉사 횟수를 월2회로 늘리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대표적 재능 나눔 봉사단체로 자리 잡고자 한다. 총무 김난희(57세·하단동)씨는 처음에는 무대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긴장되었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까지 얻었다고 한다. “공연장에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볼 때마다 내가 더 에너지를 얻는다” 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성격이 밝아졌고 친화력도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하구에 아동유괴 방지, 전기절약과 환경사랑 캠페인 인형극 전문봉사단이 있어서 든든하다. 평생학습관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하는 이야기 주머니의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한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맞춤형 교육으로 평생의 소원 이뤄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형설모두학교

형설모두학교는 대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시작되었다. 형설모두학교는 1980년 10월 사하구 감천동에서 형설야학교로 출발했으나 올해 4월 전환기를 맞았다. 형설모두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지난 8월부터 야간 수업뿐 아니라 주간수업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밤일을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 성인 한글반과 김정고시반을 개설했다. 현재 주 5일(월~금) 한글반과 김정고시반 외에 영어반과 컴퓨터반도 운영한다. 요즘 세상에 왜 야학이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형설모두학교 학생이 80명에 달하는 것을 보면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형설모두학교의 특징은 맞춤형 교육에 있다.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먼저 공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그 소원에 맞춰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한글을 몰라서 버스를 잘

못 타고 내리기도 했던 할머니는 이제 글쓰기가 재미있다고 하셨다. 더 배워서 손자에게 손편지를 쓰고 싶은 희망이 생겼다. 동아리 총무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열성 아줌마는 컴퓨터 교육으로 총무 일을 배운다. 영어단어를 배워서 손자와 소통을 꿈꾸는 할머니, 혼자 외국 여행을 하고 싶은 박해순 씨(63세)도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다.

형설모두학교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은현범 교장(29세)은 “만학도만 다닌다는 편견을 깨고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한 청소년도 아우를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라고 말한다. 자식 같은 선생은 부모 같은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지만 보다 깊은 인생의 연륜을 배운다는 청년 교장의 말처럼 누구나 가르치면서 또 누구나 배우는 학교의 이념이 빛나 보인다.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는 형설모두학교가 더욱 번창하길 기대한다.

최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jini3259@hanmail.net

시와의 행복한 만남 시낭송 행복나눔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다’

시낭송 강좌 시낭송 행복나눔이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평생학습관 1호 강사인 이숙희 씨가 맡았다. 낭송할 때 쉬어야 할 곳, 빨리 읽어야 할 부분, 강약 조절하는 법 등 다양한 기법을 알려 주었다. 평소 눈으로만 시를 읽었던 사람들이 소리내어 읽어보고 다른 이의 시낭송도 감상하고 좋은 시도 새롭게 만나며 2시간 수업은 금세 지나갔다. 6주의 시간도 너무 아쉬워했다.

수강생 전희자(63세·하단동)씨는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릎 썰어 말리셨다’ 로 시작되는 시 ‘온돌방’ 을 읽으면 어린 시절 살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른다고 미소를 보였다. 수강생 모두가 수업 내내 시낭송과 함께 행복을 충전하고 나누었다. 시낭송 초보여도 좋고 시인이 아니어도 좋다. 자작시

가 있던 없든 평소 좋아하던 시가 있던 없든 상관없었다. 성별과 나이를 잊고 진심을 담아 시를 낭송하고 낭독했다.

마지막 수업은 시낭송 발표회로 꾸며졌다. 자작시나 애송시를 발표하고 참여 소감도 얘기했다. 수강생들은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동아리도 결성되었다. 동아리 회장인 옥영재(70세·하단동)씨는 “내 음성으로 내 마음을 알린다는 것이 가슴 뚫듯하고 시낭송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며 소감을 전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때 시낭송반 김상우(73세·하단동)씨, 최세경(41세·다대동)씨가 시를 낭송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시낭송반 자체 발표회도 가능할 것 같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사하구 평생학습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평생학습 참여 주민 한줄 소감)

2016년 사하구는 ‘평생 학습도시 사하’ 라는 이름에 맞게 사하구 평생학습관, 학습 성과 공유회, 찾아가는 홍보 체험관 등 다양한 곳에서 평생 학습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평생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소리를 들어 보았다.

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16mmstory@naver.com

나이가, 연륜이 깊어지며, 모든 게 퇴화됨을 느끼면서도 젊은이들과의 수업에 점점 매료되어 강좌가 끝이 나는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 놀이지도자 과정에 등록을 잘 했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 키워갈 손자, 손녀들과 게임을 통해 친밀감 갖기를 원합니다. -유인숙 (신평 2동)-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로의 일과 배움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나 자신이 발

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지령 (당리동)-

아이를 키우며 주부로서의 생활만 하다 평생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동민 (하단 2동)-

큰아들아, 딸내미야, 막내아들아! 배움에는 끝이 없단다. 엄마를 보렴! 사하 평생학습관 아저! 아자! -김막월 (다대 1동)-

생활의 리듬감이 생겨서 즐거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장소 제 공해주신 과정 2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순선 (괴정 2동)-

삶에 의욕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즐거워 졌어요. -김민기 (하단동)-

퇴임 후 무료하게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의미 있는 시간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배움과 실천, 봉사

를 하며 제2의 인생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육정치 (다대 2동)-

동아리활동으로 생활의 활력과 나눔의 즐거움을 알 수 있어 삶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이경애 (다대 1동)-

하모니카를 불면서 모르던 옛 노래를 배우며 흥겹고 즐겁게 웃으며 월 2회 봉사

활동도 하다 보니 생활에 활기도 넘치고 화합도 잘 되어 금빛노을처럼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명희 (괴정 3동)-

항기 수업을 받으면서 나 자신의 내면에 향기를 알아가서 너무나 좋아요. 같은 수강생들과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되고, 마을의 어르신들과의 교류는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전금옥 (다대 1동)-